

Market Intelligence

- 1.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1
- 2. 주요 통계3
- 3. 美연준 테이퍼링이 국내 수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4

주요 동향

◇ 美 Fed 의장 앨런, “양적완화조치의 점진적 규모감축 지속” 표명

- 버냉키 前의장의 양적완화조치 규모감축 기조 유지, 주목할 만한(notable) 경기전망 변화가 있을 때에만 양적완화조치 규모의 감축 속도를 완화할 것임을 시사
- Fed의 자산매입속도는 글로벌 금융상황과 무관하게 미국의 경기상황과 경제지표에 의할 것(data dependence)임을 표명

◇ 美 상원, 정부 부채한도 적용 1년 유예안 통과

- '15년 3월 16일까지 美연방정부 부채한도의 적용이 유예되는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 서명후 발효예정

◇ 유로존, 2월 경기신뢰지수 예상(10.7)밖 전월(11.9)대비 상승한 13.3

- (로이터) '11년 4월이래 최고 수준. 점진적 경기회복을 시사하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

◇ 中, 1월 수출 전년동월 대비 10.6% 증가한 2,071억달러

- 예상(+2.0%)을 상회. 무역흑자도 예상(237억달러)을 상회하여 전월(256억달러)대비 확대된 319억달러 시현, '09년 1월이래 최대
- (WSJ) 향후 선진국 경기개선이 중국 수출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

① 외환시장

- **(원-달러, 원-엔) 원화는 美 경제지표 부진*에 따른 美 달러화 약세 및 수출업체 달러 매도 등으로 달러화 및 엔화 대비 강세**
* 미국의 소매판매, 고용지표 부진(전월 대비 0.4%↓,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↑)
- **(엔-달러, 달러-유로) 美 달러화는 美 경제지표 부진과 캠벨 수프, 조스에이뱅크 등 일부 기업의 실적호조가 혼조세를 띄며 엔화 및 유로화 대비 소폭 약세**

구 분	'13년말	'14. 2. 7	'14. 2. 14	전주비
₩/US\$	1,055.4	1,074.3	1,063.7	△10.6
₩/100¥	1,002.3	1,052.9	1,046.2	△6.7
¥/US\$	105.30	102.03	101.67	△0.36
US\$/€	1.3736	1.3586	1.3679	0.0093

② 채권시장

- **(韓 국채금리) 美 국채금리 상승과 기관 및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세가 혼조를 띄며 소폭 하락**
- **(美 국채금리) 中 무역지표 개선과 양호한 국채 입찰 등으로 상승**

구 분 (%)	'13년말	'14. 2. 7	'14. 2. 14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86	2.84	△0.02
미국 국채(10년)	3.03	2.68	2.74	0.06

③ 주식시장

- **(韓 KOSPI) 외국인 및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상승 [(2.7) 1,922.50 → (2.14) 1,940.28]**
- **(美 DJIA) 美 경제지표 부진에도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계속되면서 상승 [(2.7) 15,794 → (2.14) 16,154]**

2

주요 통계

- ① **수출입(1월):**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0.2% 감소한 456억달러, 수입은 0.9% 감소한 448억달러, 무역 수지는 7억 달러 흑자
- 조업일수 감소(△2일)로 수출은 전년 수준이었으나 엔低와 신흥국 위기 등 각종 대외악재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8.9% 증가
 - 반도체(15.1% ↑), 무선통신기기(15.1% ↑), 철강(9.6% ↑), 석유화학(0.5% ↑), 자동차부품(0.3% ↑), 자동차(1.1% ↓), 선박(1.9% ↓), 일반기계(5.5% ↓), 석유제품(5.6% ↓), LCD(13.8% ↓)
- ② **경상수지(12월):** 전월(60.3억달러)보다 4억달러 증가한 64.3억달러 흑자
- 상품수지 흑자는 전월 61.8억달러 대비 57.1억달러로 축소
 - 서비스수지는 전월 7.0억달러 적자에서 4.4억달러 흑자로 전환
- ③ **BDI지수:** 1,106으로 전주대비 15point 상승
- 중국의 춘절 연휴 여파로 하락한 뒤, 낮은 수준에서 관망세
 - HRCI 지수는 전주 대비 2.0point 상승한 504.4를 기록
- ④ **유가:** OPEC의 세계 석유수요 증가 전망과 美 경제지표 부진이 혼조세를 띄며 Brent油를 제외하고 소폭 상승

(US\$ / 배럴)

유 종	2월 7일	2월 14일	전주비
WTI유 현물	99.92	100.31	0.39
Brent유 현물	109.38	108.81	△0.57
두바이유 현물	103.35	105.08	1.73

1 美연준 테이퍼링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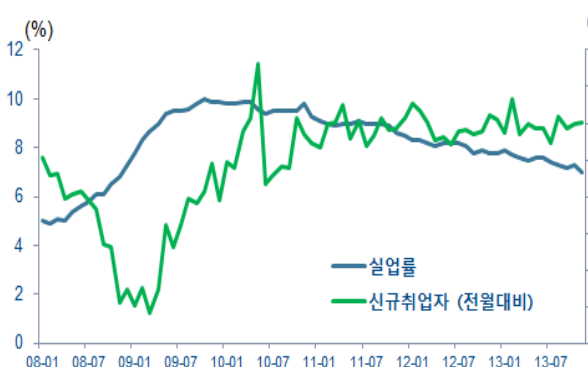
□ 美연준은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이 지속되고, 민간부문의 소비 및 투자가 회복양상을 보임에 따라 1월부터 양적완화 정책 축소

- 美연준은 1월과 2월중 국채·MBS 매입 규모 각각 100억달러씩 축소
- 미국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10.0%로 상승하였으나,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며 '13년 12월에는 6.7%를 기록
-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주택시장도 주택가격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상승하고, 신규주택판매규모도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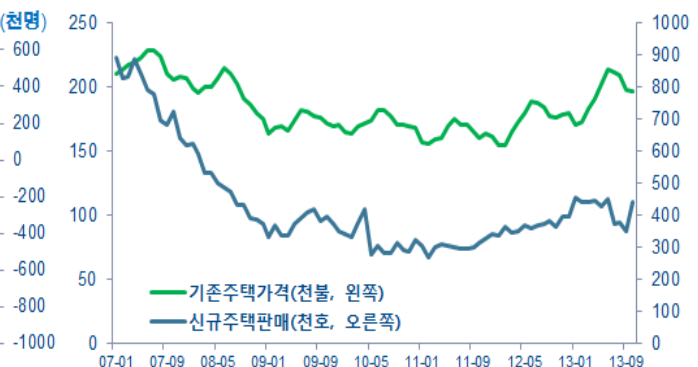
□ 향후 美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은 '14년도 하반기중 종료되고, 정책금리도 '15년 상반기중 인상될 것으로 전망

- FOMC 의사록: “양적완화조치 '14년 하반기 종료 필요”
 - 엘런 신임 Fed 의장 : 기존 양적완화 정책기조 유지 입장('14.2.12)
- 9월까지 FOMC 회의시 양적완화 규모를 100억달러씩 감축, 10월중 종료할 전망(Barclays)
- 美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의 전제조건 : 실업률 6.5%, 물가상승률 2.5%

<미국 실업률 및 신규취업자수 추이>



<미국 주택가격 및 매매 동향>



②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

□ 수출상품 수요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, 가격경쟁력 개선에 따른 효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

○ (수출물량) 테이퍼링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지적 문제로 제한될 경우, 신흥국 경기부진에 따른 물량감소를 미국의 경기회복이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

- 테이퍼링의 전제조건은 미국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국내 수출의 11%를 차지하는 미국경기 회복은 국내 수출에 긍정적임

-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은 7개국*의 수출비중은 11.3%

※ 터키, 이집트, 브라질, 멕시코, 인도네시아, 베트남, 인도

- 국내 수출의 26%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對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아 신흥국 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

※ 중국수출의 국가별 비중('13년기준) : 미국(16.5%), 일본(7%), 독일(3%)

○ (가격경쟁력)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은 개선될 전망

▶ '13.12월 테이퍼링 실시후, 원/달러환율 흐름(한국은행 자료)

『1,058.9('13.12.2) → 1,055.3('14.1.2) → 1,086.1('14.2.5) → 1,064.7('14.2.13)』

- 원화환율 10% 절하시 : 수출 0.6% 증가(KDI), 영업이익률 0.99%p 상승(SERI)

③ 국내 산업별 영향

□ 조선 산업: 선박금융 위축 우려되나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

○ 테이퍼링은 선박금융을 다소 위축시키나, 근본적인 선박 수요의 뒷받침으로 국내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

○ '14년 신조선 시장은 고효율선박 수요 등이 지속되어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, 유럽 은행들의 선박금융 경색도 점차 개선되는 움직임

□ 해외건설업: 신흥시장 진출에 악영향 우려

- 국내 수주액의 40%(약 270억달러)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남미(약 5%, 30억달러)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
 - 양적완화축소 → 외환보유고 감소 → 재정 악화 → 공공 공사발주 축소 및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
- 해당 지역국가들의 외환위기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동 지역에서 최대 20~30% 내외의 수주 감소 가능성도 우려됨

□ IT 산업: 환율 상승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유리

- 테이퍼링의 영향으로 원화가치 하락이 뒤따를 경우 IT 부품·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돼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
 - '14년 IT 수출의 최대 위협요인은 중저가 제품 가격경쟁 심화,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등
 - 다만, 최근 IT시장은 중국, 인도 등 신흥국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, 신흥국 경기위축이 심각해질 경우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존

□ 신재생 에너지: 미국 경기 회복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긍정적

-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선진국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신흥국 비중은 20% 미만에 불과
 - 세계 태양광시장은 미국, 중국, 일본 등 Big 3 시장이 태양광 수요를 견인하여 '13년 전년대비 12% 성장한 1,284억 달러 규모
 - '13년 3.5GW였던 미국 풍력수요가 올해 7.7GW 규모로 증가하여 세계 풍력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